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논문 투고 규정

【학회지 발간】 매년 2월 28일과 8월 31일 연 2회 발행하며 한글(국문) 논문과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논문을 함께 게재한다. 국제학술대회 논문집을 발행할 경우는 외국어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의 내용 및 요건】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이론가들에 관한 독창적인 논지를 개진하거나 이들의 이론을 철학, 문학, 종교, 심리학, 영화, 정치, 정신의학, 사회, 사회복지, 문화, 예술 등 학술 분야나 임상, 실생활에서 응용한 내용을 다룬 논문을 게재한다. 다른 학회지에 발표되었던 논문이나 저서에 포함되어 출판된 논문은 게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고 자격】 기고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회비 미납이 없는 본 학회 회원으로 제한하되, 외국인이나 특별기고 같은 경우 편집위원회 결의를 거쳐 자격을 인정한다. 특집이 있는 경우에는 기고자의 자격을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다.

【기고 방법】 원고는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여 필자가 책임 교정한 뒤, 전자우편으로 송부한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본문의 어떤 부분에서도 필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암시하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투고자는 학회 서식인 ‘투고자 인적사항’을 작성해 심사논문과 함께 보내야 한다. 원고는 발행일 기준 50일 이전에 제출 한다.

접수처: 편집위원회 lacan1998@hanmail.net

【원고 분량】 원고 매수는 각주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150매(약 A4, 16매) 이내로 하며 180매(약 A4, 2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외국어 논문은 6,000~8,000 단어 정도의 분량으로 한다. 투고 논문의 분량이 150매(인쇄본 34매)를 넘을 때는 초과된 인쇄본 1매당 10,000원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하며 180매(인쇄본 39매)가 넘는 경우는 원칙상 신지 않는다.

【제1저자 및 공동저자 구분】 논문이 2인 이상에 의해 집필된 경우 제1저자의 이름을 필자 표시란의 제일 앞부분에 쓰고 그 다음에 다른 공동저자들의 이름을 가나다 순 또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함으로써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2인 이상이 집필했지만 제1저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저자들의 이름을 가나다 순 또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고 마지막 이름 끝에 “(가나다 순 또는 알파벳 순)”이라 표기한다.

【원고 심사 및 게재 판정】 학회에서 정한 <심사 및 게재 절차에 관한 세칙>에 의거 심사 후 게재를 판정한다.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 분량의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논문 게재료】 논문 게재가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고자는 편집 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정액의 발간 비용(전임 25만 원, 준전임 20만 원, 비전임 15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아 각주에 연구비 지원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편당 35만 원 이상의 게재료를 내야 한다.

【논문의 저작권】 본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의 출판사업과 관련하여 논문을 재인쇄할 경우 필자의 동의 없이 출판하고 사후 필자에게 통보한다. 학교 교육용 자료나 개인 연구를 제외하고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무단 복제할 수 없다.

【편집세부규정】 다음과 같이 편집세부 규정을 제시한다. 아래에 제시된 논문 작성 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논문 작성

- 1) 한글프로그램이나 MS 워드로 작성하고 글자는 바탕체를 기본으로 한다.
- 2) 논문 편집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 본문: 왼쪽 여백 0.0 오른쪽 여백 0.0, 들여쓰기 10.0, 줄간격 160%, 글자크기 10
 - 인용문: 왼쪽 여백 30, 오른쪽 여백 30, 들여쓰기 0.0, 줄간격 160%, 글자크기 9
 - 각주: 왼쪽 여백 0.0, 오른쪽 여백 0.0, 내어쓰기 15.0, 줄간격 130%, 글자크기 9
 - 참고문헌: 글자크기 10, 왼쪽 여백 0.0, 오른쪽 여백 0.0, 내어쓰기 31.5, 줄간격 160%
 - 초록(Abstract): 작성 형식은 본문에 준한다.
- 3) 본문 내용구분은 I, II → 1, 2 → 1), 2) → (1), (2) → a), b) → (a), (b)의 순으로 한다.
- 4) 예술작품과 영화명은 < >로 표기하고, 필자가 인용하는 도판은 (그림 1), (그림 2)로 표기한다. 문학작품의 경우 장편은 『 』, 단편 소설과 시 등은 「 」로 표기한다.

예) <모나리자>, <시민 케인>, (그림 1), (그림 2), 『죄와 벌』, 「소나기」
- 5) 앞에서 인용한 책을 다시 인용할 때는 (앞의 책, 쪽수)로 표기하며 동일한 저자의 다른 책을 인용할 때는 최초 인용처럼 (저자명 출판연도: 쪽수)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2. 서지사항

- 1) 논문 제목, 필자 이름 순으로 중앙정렬 방식으로 배치한다. 부제를 달 경우, 본제목과 부제목 사이에 콜론(:)을 넣는다.
- 2) 특정기관의 논문지원이 있을 경우, 논문지원에 대한 언급은 논문제목 옆에 *(위첨자 형태)로 표기한 후 번호 없는 각주로 기재한다. 그리고 소속은 **(위첨자 형태)로 표기한 후 번호 없는 각주로 기재한다. 특정기관의 논문지원이 없을 경우, 소속을 *(위첨자 형태)로 각주로 기재한다.

예)

정신분석 주제개념의 현시적 유용성: 라깡 이론을 중심으로*

홍길동**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하에
 ** 한국대학교.

3. 초록과 주제어(키워드)

- 1) 800자 내외의 한글 초록을 필자의 이름 밑 박스 안에 제시한다. 그리고 논문 말미에 100-350단어 정도의 외국어 초록(요약문)을 첨부한다.

다. 한글 초록은 800자 내외(대략 1행 32자로 감안하여 25행 미만), 외국어 초록은 100-350단어(대략 1행 15단어로 감안하여 6행 이상 23행 미만)의 초록 분량을 엄수한다.

2) 외국어 논문은 논문 서두에 100-350단어 정도의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초록을 제시하고 논문 말미에 원고지 800자 내외의 한글 요약문을 첨부한다.

3) 필자의 영문 성명은 성, 이름 순으로 표기한다.

예) Hong, Gil-Dong

4) 초록 밑에 각각 한글 주제어와 외국어 키워드를 5~8개 제시한다. 키워드는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맨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4. 외국어 표기

1) 영문 저자명의 경우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약자로 처리한다.

예) Lacan, J.

2) 한자나 외국어(용어, 고유명사, 작품명)를 쓸 경우, 먼저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한다. 본문에 한 번 사용한 외국어를 다시 쓸 때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외국어 용어는 언어를 불문하고 신조어, 원저자의 강조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탤릭 표기하지 않는다. 작품명, 도서명 등의 외국어 원어도 이탤릭 표기하지 않는다.

예) 주이상스(jouissance), 라랑그(Lalangue)

3) 두 개의 외국어를 나열할 때에는 쉼표로 병기한다.

예) '물'(das Ding, the Thing)

5. 인용

1) 각주는 가급적 달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본문의 논의 전개에 꼭 필요한 정보나 혹은 재인용의 경우 원래의 저술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주로 처리한다.

2)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는 본문의 괄호 속에 저자의 이름과 출판연도, 쪽 번호만 밝힌다. 인용 또는 참고한 문헌이 되풀이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예) 윌리엄스는 “문화는 정치적 지형을 변형시킨다”(Williams 1990: 7)라고 말했다. “문화는 인간 주체의 욕망에 따라 정치적 지향을 바꾼다”(Williams 1990: 7-8).

3) 번역서를 인용할 때에는 원전이 발간된 연도와 번역판 연도를 같이 표기한다. 인용 쪽수는 원본을 기준으로 한다.

예) 윌리엄스는 “문화는 정치적 지형을 변형시킨다”(Williams 1990/1996: 25)고 주장했다.

4) 두 명 이상의 저자를 인용할 경우, 가나다 순 또는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저자가 같고 연도가 다른 문헌을 함께 언급할 때에는 연도만 나열한다.

예) (서용순 2004; 홍준기 2008), (James 1996a/1996b)

5) 저자나 역자가 2명인 글은 (홍길동 & 홍길순)으로 표기하고 3명 이상인 글은 (홍길동 외), (Keller, H., et al. 2008: 10)로 표기한다.

6) 필자가 본인의 저술을 인용할 때에는 ‘줄고’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밝힌다.

7) 세 문장 이하를 인용할 경우, 인용 시작과 끝에 한글자판 상에 표기되는 큰따옴표(“”)로 본문 속에 처리한다(영문자판 상에 표기되는 인용부호("))가 아님에 유의할 것). 필자의 의도에 따른 강조는 “부호나 굵은 글씨로 처리한다.

- 8) 네 문장 이상을 인용할 경우, 별도의 인용부호 없이 본문과 한 칸 여백을 설정해서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 9) 인용할 때 필자가 생략하는 부분은 [...] 부호로 표시하고 (출판편집 작업시 [...]로 바뀜), 필자가 추가하는 부분은 [] 부호로 표시하고 이를 각주에 밝힌다.
- 10) (괄호) 안의 괄호는 아래와 같이 []로 표기한다.
예) (라깡[의 사상]과의) 관계는

6. 참고문헌

- 1) 논문의 말미에 참고 문헌의 서지 정보(저자명, 도서명, 논문명, 학술지명, 학술지의 해당 권호, 발표 연도, 해당 쪽수 등)를 정확히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 2) 한글책의 저자 역할은 지음, 엮음, 옮김으로 표기한다.
- 3) 참고문헌에는 본문에서 인용하였거나 참조한 문헌만을 수록한다.
- 4) 참고문헌의 수록 순서는 국한문 문헌 다음에 외국 문헌을 신되, 각각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과 알파벳 순서로 기재한다. 항목별 수록 순서는 논문, 저서, 신문·잡지, 인터뷰, 인터넷 자료 식으로 한다.
- 5) 같은 저자의 문헌은 출판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하되, 같은 연도의 것이 두 편 이상일 때에는 연도 다음에 a, b, c, ... 등을 넣어 구별한다.
예) (1999a/1999b)
- 6) 동양어권 논문은 「 」, 저서는 『 』, 서양어권 논문은 “ ”, 저서는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 7) 각주에서 같은 저자의 여러 저서나 논문을 병기할 때는 단락을 나누지 않고 이어서 쓴다. 모든 항목은 마침표로 끝낸다.
- 8) 특히 단행본의 연도는 문헌이 인쇄된 연도가 아니라 저작권 표시 (©)된 연도를 쓴다.

- 9) 발간 연도가 불분명한 문헌은 (n.d.)라고 쓴다.
- 10) 참고논문은 권수와 호수, 쪽수를 아래와 같이 명기한다. 권호 구분이 없을 때에는 괄호 없이 표기한다.
예) 하상복 (2010). 「비판적 다문화주의를 통한 다인종 문학의 검토와 마마데이의 『새벽으로 지은 집』 다시 읽기」. 『새한영어영문학』. 52(2). 169-191.
- 11) 신문이나 잡지 기사는 아래와 같이 명기한다.
예) “기사 제목”. <동아일보>. 1961년 10월 7일.
- 12) 전집류 제목은 아래와 같이 책 제목 뒤에 배치한다.
예) Sartre, J.-P. (1943). *L'être et le néant*. Coll. Tel. Paris: Gallimard.

한글(우리말) 논문의 예: 다음 예는 이미 출판된 논문을 새로운 논문 작성 요령에 맞추어 변형한 것이다. 외국인 인명이 처음 언급되는 부분과 독립인용이 나오는 부분만을 예로 제시했고, 인용문의 번역은 원문을 따랐다.

푸코와 라깡: 응시의 개념을 중심으로*

홍길동**

<한글초록>

▶ 주제어: 라깡, 시선, 욕망, 오브제 a, 실재, 환상

*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연구비 지원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예)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지원 인문사회분야 연구논문임(KRF-2009-A00158).
** 한국대학교.

I. 푸코의 유산

20세기 프랑스의 대표적 지성으로 꼽히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남긴 정신적 유산은 지대하다. 그의 이론은 사학과 철학, 문학과 사회과학 및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히 인정받고 있다. 푸코는 특히 주체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주체가 구조에 의해 구성되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점에서 대표적인 (탈)구조주의자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푸코의 30여년에 걸친 이론적 편력은 주체에 대한 구조의 우위라는 단순화된 구조주의적 공식을 확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공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주체와 구조간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구조주의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푸코는 자신의 이론적 변화를 담론 분석, 권력 분석, 그리고 주체 분석의 세 단계로 분류한 적이 있다(Foucault 1966: 6). 이 중에서 담론과 권력의 개념은 모두 구조의 개념을 변형, 발달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담론 혹은 권력에 대한 주체의 종속이라는 유사한 논지를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

에피스테메(épistémè)에 대한 푸코의 다음 설명을 보자.

에피스테메는 일정한 시기에 있어 인식론적 형상들, 학문들, 그리고 형식화된 체계들을 낳게 하는 언설적 실천들을 결합하는 관계들의 총체이다. [...] 에피스테메는 매우 다양한 학문 영역들을 넘나들면서 하나의 주체나 정신 또는 어떤 시대의 지배적인 통일성을 나타내는 인식의 형태나 합리성의 한 유형이 아니다. 그것은 언설적 규칙성들의 수준에서 학문들을 분석하고자 할 때 제반 학문들 사이에서 일정한 시대 동안 발견 될 수 있는 관계들의 총체이다(Foucault 1969: 250).

이처럼 푸코는 에피스테메를 일정한 시대 동안의 언설을 결합하는 관계들의 총체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란 곧 고고학적 모델을 발견해내는 일이었다.

* * *

“길들여진” 광기는 “이제 이성의 척도와 진리의 노동에 참여하게 된다”. 푸코는 “고전주의 시대가 르네상스가 해방시켰던 광기의 목소리를 침묵시켰다”고 말한다(Foucault 1969: 35, 36, 38). 그리고 이 침묵의 장소는 곧 종합병원이다. 광인들을 태우고 도시들을 전전하던 선박은 이제 병원으로 대체되고, 광기는 병원의 울타리 속에 감금되어 침묵당하게 된다.

1656년에 설립된 오빠탈 제네랄은 따라서 광기가 이성에 의해 길들여져 침묵당하고 감금되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다. 여기서 푸코가 주목하는 것은 이 종합병원의 성격이다.

처음부터 한 가지는 분명하다. 즉 오빠탈 제네랄은 의학적 기관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준사법적 구조였고, 이미 제정된 권력기관과 더불어 그리고 법원 밖에서 결정하고, 판결하고, 처형하는 행정기관이다. [...] 거의 절대적 권위, 항소가 불가능한 사법권, 저항이 불가능한 집행영장. 오빠탈 제네랄은 왕이 경찰과 법원 사이의, 법의 한계 지점에 설립한 이상한 권력이었고, 제 삼의 억압의 질서였다(Foucault 1969: 40).

푸코에 의하면 종합병원은 정신병자를 치료하는 의학적 기관이기보다 광인들을 도덕적으로 심판하고 처벌하는 사법적 기관이요 감호소였다. 푸코는 특히 이 감호소에서 행사되는 권력을 강조한다. 이 감호소에 수용될 사람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은 병원건물 내에서만 아니라 그들의 사법권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독, 감찰하고 징계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했다.

참고문헌의 예

참고문헌

- 홍준기 (2002). 「라깡과 프로이트·키에르케고르: 불안의 정신분석」. 김상환, 홍준기 엮음. 『라깡의 재탄생』. 창작과비평사. 191-228.
- 하상복 (2010). 「비관적 다문화주의를 통한 다인종 문학의 검토와 마마테이의 『새벽으로 지은 집』 다시 읽기」. 『새한영어영문학』. 52(2), 169-191.
- Cooper, S. (2008). “Identification Today”. *Nottingham French Studie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47(3), 103-10.
- Dunning, E. & Mennell, S. (1996). “Preface”. Elias, N. *The Germ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Elias, N. (1939a). *Über den Prozeß der Zivilisation I*. 박미애 옮김 (1999a). 『문명화과정 I』. 한길사.
- _____ (1939b). *Über den Prozeß der Zivilisation II*. 박미애 옮김 (1999b). 『문명화과정 II』. 한길사.
- _____ (1996). *The Germ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Freud, S. (1955). “Family Romances”.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9*. 김정일 옮김 (2011). 「가족 로맨스」.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 Foucault, M. (1976). *Historie de la Sexualité*. 이규현 옮김 (2010). 『성의 역사. 1권: 앎의 의지』. 나남.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권기돈 옮김 (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새물결.
- _____ (1992). *Sexuality, Love & Eroticism in Modern Society*. 배은경 & 황정미 옮김 (1995).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 Keller, H., et al. (2004). "Developmental consequences of early parenting experiences: Self recognition and selfregulation in three cultural communities". *Child Development*, 75, 1745-1760.
- Kernberg, O. (1978). *Borderline-Störungen und pathologischer Narzißmus*. Frankfurt am Main: Suhrkamp.
- Kierkegaard, S. (1999). *Begrebet Angest*. 임규정 옮김. (1999). 『불안의 개념』. 한길사.
- Kohut, H. (1973). *Narzißmus. Eine Theorie der psychoanalytischen Behandlung narzißtischer Persönlichkeitsstörung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 Lacan, J. (1997).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VII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1959-1960)*. Ed. Jacques-Alain Miller. Trans. Dennis Porter. New York: Norton.
- Lash, Ch. (1979). *The Culture of Narcissism*. 최경도 옮김. (1989). 『나르시시즘의 문화』. 문학과지성사.
- Sartre, J.-P. (1943). *L'être et le néant*. Coll. Tel. Paris: Gallimard.
- Sennette, R. (1974). *The Fall of the Public Man*. New York, London: W. W. Norton & Company.
- _____ (1998). *The Erosion of Character*. New York, London: W. W. Norton & Company.
- Soler, C. (2002). *L'inconscient à Ciel Ouvert de la Psychose*. Toulouse: Presses Universitaires du Mirail.
- Verhaegue, P. (2004). *On Being Normal and Other Disorders*. New York: Other Press.

[Abstract]

Foucault and Lacan: A Psychoanalytic Reflection on Foucault's Concept of Gaze

Hong, Gil-Dong*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 Key Words: psychoanalysis, visual literacy, transgression, anamorphosis, objet a

* Hankuk University.

외국어(영어) 논문의 예: 다음 예는 기존에 발표된 논문을 새로운 논문 작성 요령에 맞추어 변형한 것이다.

Negative Dialectics of Woman in Theodor Adorno

Hong, Gil-Dong*

I. Introduction

When one discerns a certain pattern in Adorno of representing woman, it is necessary to theorize whether this pattern derives from a point of view that collectivizes and homogenizes woman (or the feminine) for a political as well as philosophical reason, which should certainly be distinguished from the polemic impasse of appellation per se. I would like to call attention especially to a few women who appear in his *Minima Moralia*, in relation to the figuration of woman in *Dialectic of Enlightenment* in order to juxtapose and parallel the female appearances and their meaning.

Whereas power that instantiates through man's self-domination categorically precludes man's experience of domination, woman's experience of power is mediated by the family, in which she experiences domination in the form of patriarchy. Horkheimer and Adorno write:

Before, thralldom in her father's house would awaken an emotion in a girl which seemed to point to freedom, even though it was actually realized either in marriage or somewhere else outside. But now that a girl has the prospect of a job before her, that of love is obstructed(Horkheimer & Adorno 1944: 107).

[...]

* Hankuk University.